

대구광역시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나들이는 호명관광여행사 유망기업 여행안내 054-791-1777

단체장 일정



권기창 안동시장은 1일 대동관 낙동홀에서 열리는 4월 정례조회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콘텐츠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1일 오전 8시 30분 영양군청 사회실에서 개최되는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벚꽃 없는 벚꽃 축제’...경북 지자체들 울상

찾은 강우-꽃샘 추위 개화 늦어 안동, 4월 7일까지 일주일 연장 영주, 30일 → 4월 6일로 연기 의성, 30일부터 이틀간 진행

찾은 강우와 꽃샘 추위로 경북 북부지역 개화가 늦어지면서 ‘벚꽃 축제’ 개최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안동시는 낙동강변 벚꽃길 및 탈춤공원 일원에서 지난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2024 안동벚꽃축제’를 개

최하고 있다. 하지만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기대했던 벚꽃은 구경하지 못한 채 아쉬움 속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시는 앞으로 화창한 날씨와 따뜻한 기온이 예보되며 주말부터 벚꽃이 차츰 피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 기간을 4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운영하던 체험부스와 식당, 푸드트럭, 플라마켓, 신나는 놀이동산, 반려견 존, 벚꽃 라디오,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는 그대로 운영된다.

벚꽃길을 따라 조성된 벚꽃 포토존과 쉼

터, 소원가득 벚꽃터널과 실개천 LED 조명존도 즐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져 아쉬움이 있다”면서 “축제 기간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관람객들이 벚꽃 아래서 봄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원당전 장방고 일원에서 30일부터 이틀간 ‘벚꽃과 함께하는 시민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지면서 긴급히 개최 시기를 4월 6일로 일주일 미뤘다.

영주시의 이번 행사는 어린이합창단 공연, 난타공연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벚꽃길 걷기, 어린이동요대회, 초청공연, 어울림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의성군 남대천 구룡공원 일원에서는 30일 ‘제2회 남대천 벚꽃축제’가 개막됐다.

남대천 2.5km 벚꽃길을 중심으로 벚꽃 버스킹, 벚꽃길 스탬프 투어, 어린이 놀이터, 레크리에이션 및 노래자랑을 비롯해 다양한 푸드트럭과 판매·체험 부스가 준비됐다.

‘미스트롯3’로 이름을 알린 가수 금은별,

슬기, 이수연이 출연하는 ‘벚꽃콘서트’, 희극인 신윤승과 정성훈이 출연하는 유튜브 촬영,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품바공연 등도 펼쳐진다.

하지만 개화가 늦어지면서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기대하던 벚꽃은 아직 구경할 수 없게 됐다.

군 관계자는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인 벚꽃은 아직 볼 수 없지만 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등은 그대로 운영한다”며 “가족, 연인들과 함께 봄기운을 느끼며 소중한 추억을 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정부 가장 잘한 일, 지역 민간투자 촉진”

대구·경북,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지원 방안’ 발표...생산·취업 효과 기대 지역투자 촉진·기업 투자 필요

정부는 이 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포항의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지원, 2전지 특화단지 송전선로 조기 준공 추진, 구미 1산단 지역활성화 펀드 사업 지원이 포함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포항의 포스코와 예코프로 등이 진행하는 24조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사업 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선행절차들을 조속히 진행해 20조원 투자를 조기장출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의 친환경 제조기술 경쟁력 강화로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자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해상교통 안전

진단을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게 완료해 최소 6개월 이상의 행정절차를 단축했으며 연내 매립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당초 청하 변전소에서 영일만 산단을 연결하는 13km 구간의 송전선로를 2028년 10월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공장 신증설을 지원하고자 추가 행정절차 단축을 내세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필요한 지자체의 인허가를 신속 추진하고 한편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조기 신청과 산업부의 승인 기간 최소화로 추가 단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입주가 늘어나면서 영일만 산단은 2027년까지 180MW, 2030년까지 470MW의 추가 전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이철우 지사의 요청으로 청하 변전소와 영일만 산단을 연결하는 송전선로를 표준공기보다 1년 이상 단축된 2028년 10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특히 지역 활성화와 투자펀드 정

책의 1호 사업인 구미의 근로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크게 반겼다.

이 사업은 50년이 넘는 노후 산단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가 지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추진된다.

여기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저리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난 26일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에서 이 사업을 ‘어게인 1973 청년드림타워’로 이름 붙이고 구미산단이 준공된 1973년으로 돌아가 지역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앞으로 16년간 운영하면 총 840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034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한민국 성공시대 경제개발계획과 기업의 투자 그리고 새마을 운동 같은 국민적 열망이 합쳐진 결과”라며 “지방시대도 정부의 지역투자 촉진정책과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수주·광공업 지표는 하락



2월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형소매점 판매 지표는 증가했고 건설 수주와 광공업 생산 지표는 하락했다.

29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대구·경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 지난달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2020=100)는 103.9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는 각각 1.1%, 20.6% 증가했다.음식료품,기타상품,화장품,오락·취미·경기용품,가전제품 등의 상품군 판매는 증가했고의복,신발·가방은 줄었다.

경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3.9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7.1% 증가했다. 대형마트 판매는 19.9%

올랐다.음식료품,기타상품,화장품,오락·취미·경기용품,신발·가방 등 상품군은 증가했고 의복,가전제품은 감소했다.

지난달 대구광역시 광공업 생산지수(2020=100)는 107.7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0.6% 하락했다. 전자·통신(5.1%), 의료정밀광학(4%), 고무·플라스틱(1.7%) 등의 업종은 증가했다. 기계장비(9.6%), 금속가공(7.8%), 자동차(7.6%) 등에서는 하락했다.

경북의 2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93.3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0.5% 줄었다. 의약품(60.5%), 금속가공(43.8%), 전기·가스·증기업(25.4%) 등의 업종에서는 증가했다. 기계장비(26.6%), 전기장비(22.6%), 전자·통신(18.3%) 등은 감소했다.

2월 대구광역시 건설수주액은 125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5% 감소했다.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8조5633억원 중 대구시는 전국 대비 1.5%를 차지했다. 경북지역 건설수주액도 357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9% 감소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Advertisement for KUMHO Waterpolis and ANSIM NEWTOWN,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project details.

추경호 의원 3선 도전 출정식... 본격 선거운동 돌입

달성 다사읍서 지지자 환호 보낸 추 후보 "나라 살리는 선거해 달라"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대구 달성군)가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29일 달성군 다사읍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수많은 지지자와 시민들이 추 후보를 응원했다. 추 후보는 부총리를 역임한 국회의원으로 달성군에서 3선에 도전한다. 출정식에 앞서 참석한 지지자들은 열정적인 환호로 추 의원을 환호했다. 추 후보는 부인과 함께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달라질 달성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힘을 모아줄것을 당부했다. 그는 △대구 철도 건설 △제2국가산단 조성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전기차 모터 부품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유치 등

대구도 국가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시 범죄자 소굴당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된다"며 "나라를 살리는 선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시킬수 있다. 범죄자들이 검찰 독재자라고 한다"며 "다수당이 돼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구 달성군에 출마한 추 후보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한편 추 후보는 지난달 30일 토요일을 맞아 현 풍시장 도개비 중앙광장에서 2030 청년이 찬조연설에서 눈길을 끌었다. 조여은 기자



대구 '최대 격전지' 중·남구 총력 유세전

허소·김기웅·도태우 후보 "내가 적임자" 한표 호소

대구 중·남구 선거구는 4·10 총선 대구 최대 격전지로 출마자들이 총선을 열을 앞둔 31일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남구 선거구는 여당과 야당, 무소속까지 후보 8명이 나섰다. 중·남구는 보수 색채가 강한 보수정당이 내리 당선된 곳이지만,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의 공천 번복 사태에다 정치 신인의 전략공천으로 보수 표심이 분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허소 더불어민주당 전 청와대 행정관(54)과 국민의힘 전략공천을 받은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62), 5·18 평화 발원 논란으로 여당의 공천이 취소

돼 탈당한 도태우 변호사(54)가 치열하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허소 후보는 이런 점을 노리고 진보·중도층을 파고드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오전부터 중구와 남구 지역 성당을 돌며 차량 이동 유세를 펼쳤다. 부활절인 점을 감안해 중구 삼덕성당과 대봉성당 등을 돌며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후보는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유세 차량 등을 타고 얼굴 알리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정치 신인인 탓에 낮은 인물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정책통'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전날에는 서문시장과 봉덕시장, 반계시장 등지를 돌며 "중구와 남구의 새로운 '미래 정책통'이

라며 명함을 건네기도 했다. 김 후보는 오는 1일 오후 퇴근 시간에는 차량이동이 많은 명태네거리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직자, 지방의원 등과 함께 합동유세를 진행하며 세(勢) 과시에 나설 예정이다. 도태우 후보는 "진정한 보수, 선진 보수를 내세우며 유세전을 이어가고 있다.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선거 출정식을 가진 그는 달성공원, 흙플러스대명점 인근을 돌며 지지자를 호소했다. 전날 출정식에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신평 변호사, 최성해 전 중앙대 총장, 지지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정식에서도 후보는 "4월 10일 투표소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보수 가치의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한 선진화를 위한 운영적인 것만을 들어 올리자"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선거운동 첫 주말...대구 수성구 갑·을 표심잡기 열전

수성갑 강민구 '벽치기 유세' 펼쳐 주호영은 산매광장 등 지지 호소 수성을 이인선·오준호 공약 경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인 30일 대구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성구갑에서 야·야 무소속 후보들이 유권자를 만났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동 인구가 많은 범어네거리에서 아침 인사로 시작을 열고 이후 아파트로 찾아가 '벽치기 유세'를 펼쳤다. 벽치기 유세는 대규모 공동 유세가 아닌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담벼락 등을 바라보며 혼자 연설하는 방식이다. 강 후보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며 "일을 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 경쟁시켜 달라"며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황사로 인해 시민들이

실내에서 많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돼 아파트 단지에 직접 찾아가 유세 활동을 펼쳤다"며 "수많은 시민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지지를 해주시고 계신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후보는 같은 날 오후 4시 노변공원에서 거점 유세를 시작으로 한 시간 삼십분 뒤인 오후 5시 30분 산매광장을 찾아 저녁 유세를 진행했다. 수성구갑에는 여야 무소속까지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수성구을에는 이인선 국민의힘 후보가 오전 10시 30분 수성못에서 거리 인사로 시작했다. 그는 시민들과 약속하며 "수성못 개발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수성못 개발과 남부선 조기 착공을 핵심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시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핵심 공약인 수성못 개발과 남부선 조기 착공 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

다 보니까 젊은 층 유권자와 함께 사진도 촬영하고 소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후 3시 수성못 인근 상하동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는 등 수성못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40분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세상에서 '어린이 놀 권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 후보는 "어린이가 동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며 "수성구 소관 어린이 놀이시설 543개 중 공공놀이터는 84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사유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놀이터를 확대하고 통합놀이터법을 개정해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이 어울려 놀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 전체가 어린이와 양육자를 존중해야 하고 안전사고 정책보합제를 도입해 노키즈존의 축소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도 오후 수성못에 방문해 시민들과 주제에 제한없이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산동에 있는 동아백화점으로 이동해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수성구을에는 야권 단일후보 무소속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조여은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57-9000 경영지원국 053-257-5000 광고국 053-257-0800 인쇄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5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일원실 053-25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구 야권연대 '민주진보연합' 합동 출정식

"승리의 파란 일으키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3개 정당으로 구성된 민주진보연합이 4·10 총선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대구에서 합동 출정식을 열고 본격 레이스에 들어갔다. 민주진보연합은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대구에서 승리의 파란을 일으키자"며 지지를 호소했다. 출정식에는 허소 중·남구 후보(민주당), 신효철

동구·군위군갑(민주당), 황순규 동구·군위군을(진보당), 박정희 북구갑 후보(민주당), 신동환 북구를(민주당), 강민구 수성구갑 후보(민주당), 오준호 수성구을 후보(새진보연합), 김성태 달서구를(민주당), 최영오 달서구을 후보(진보당), 박형룡 달성군 후보(민주당) 등 10개 선거구 후보가 참석했다. 권택홍 달서구갑 후보(민주당)는 유영하 국민의힘 후보와의 선거방송 토론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 사전투표소 3곳서도 불법 카메라 발견

선관위 "경위 파악 중"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사전투표소 3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대구 북동1동과 대명6동, 대명10동 행정복지센터 등 3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북동1동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자체적으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대명6동과 대명10동은 경찰이 알려와 설치가 파악됐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는 서울과 부산, 인천 등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수기 옆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선관위와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와 관련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경산 후보 3명 "의사 증원 찬성" 한목소리

조지연·엄정애·최경환 TV토론회

22대 총선 공식선거 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 KBS 대구방송을 통해 열린 경북 경산시 선거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와 녹색정의당 엄정애 후보,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의사 증원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의사 증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 후보는 "고령화 시대의 의료 수요 증가에 맞게 의사 증원은 당연하게 해야 한다"며 "떨어붙이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는 "지역 의료 자원 확대는 필수적이고 지역 인제 전형 같은 방법을 통한 인력 수급은 불가피하다"고 찬성했다. 엄 후보는 "교육 여건만 충분하다면 3000명이

라도 증원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2000명 증원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공공의료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해법이 달랐다. 최 후보는 "공공의료원 설립보다는 대학병원과 중립지 암치료센터 유치, 종합병원 경쟁력 강화, 원격진료 등 첨단 의료 설치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후보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을 육성, 비대면 진료 병위를 확대하고 상급병원과 원격 협력 체제를 구축해 미래 지향형 스마트 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엄 후보는 "공공의료원인 경산시립의료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공공의대를 설치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 동안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던 의료 환경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구미을 김현권·강명구 '재생에너지' 공방

ASML 유치 놓고 RE100 이전 불체포 특권 포기에도 입장차

22대 총선 공식선거 운동 이틀째인 지난달 29일 TBC 대구방송에서 열린 경북 구미시를 선거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후보와 국민의힘 강명구 후보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토론회는 두 후보의 공약 발표,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반도체 공급체인 ASML 구미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건 김 후보는 강 후보에게 유치 전제 조건인 RE100 관련 기업지원 계획을 물었다. 강 후보는 "ASML 구미 유치 공약은 참 좋은 공

약으로 제가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도 "RE100은 글로벌 스탠다드도 아니고 법도 아니며 강제할 수 없는 캠페인의 개념으로 방향성은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RE100을 풍력, 수력, 태양광으로 100% 완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ASML 유치는 중국·일본·대만이 서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태로 시급한 문제인데, 국정기획 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 일을 했어야지 왜 안 했느냐"며 "캠페인은 맞지만 기업이 구매 조건으로 가는 것이어서 강제 조항처럼 된 것을 모르느냐"고 공격했다. 강 후보가 "저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는데 동참하겠느냐"고 하자, 김 후보는 "입법부의 구성원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사례를 우려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리"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조미경 기자



(주)아진피앤피, 유가·현풍에 나눔 실천

(주)아진피앤피는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5kg 60포, 현풍읍 행정복지센터에 130포를 기부했다. 아진피앤피는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폴리스에 위치한 제지·포장 기업으로, 2022년

부터 꾸준히 매 분기에 라면 60박스(100만 원 상당)를 기부하고 있다. 정연욱·김진두 대표는 "(주)아진피앤피는 유가읍에 기반한 회사로서 유가읍과 유가와 근접한 현풍읍에 사회적 책임

감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작게나마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아진피앤피는 매해 임·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 무선전력전송 융합기술 상용화 선도한다

대규모 무선전력전송 융합기술 공모사업 선정 총 130억원 투입

대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공고한 '대규모 시설용 무선전력전송 융합기술 상용화 기반 조성' 사업에 지난달 28일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로봇 등 급증하는 전기동력 기반 제품을 위한 무선전력전송 실증 및 상용화 기반 조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공고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6년까지 3년간 총 130억 원(국비 55억 원, 시비 25억 원, 민자 50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주관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과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으로 대규모 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부품·제품을 실제 운용환경에서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대구 테크노폴리스(달성군 용리 897)에 부지 1만2896㎡, 면

면적 1200㎡ 규모로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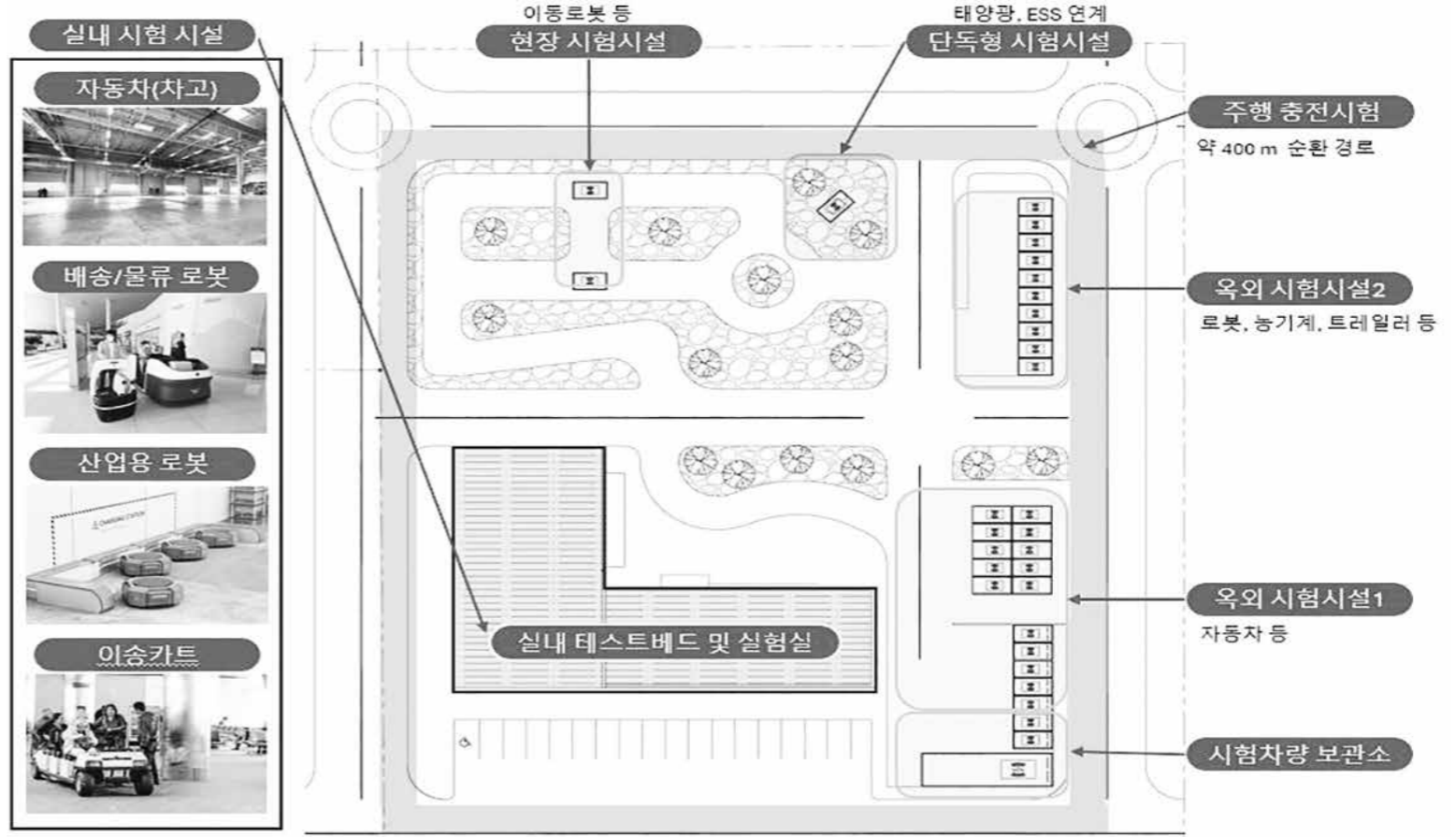
실내 밀집 충전, 옥외 주차장 충전, 이동형·벽면형·연속 매립형 등 다양한 시험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시험 및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출력(로봇, 카트 등) 및 대출력(전기차 등)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부품·제품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 지원과 무선 충전 표준모델을 개발해 국내 무선충전 제도 정비 및 국내외 표준화를 위한 시험 측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구축된 전자파 차폐실(30×20×14m)이 있는 대구 전파플래이그라운드와 연계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최근 무선전력전송 시장이 초기 단계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대구 미래 신산업을 더욱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 '아동학대 제로 전담반' 확대 운영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성구청은 아동 관련 시설과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아동학대 제로(Zero) 전담반'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수성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이 팀을 이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수성구형 특화사업이다.

사례 중심 교육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고 실습을 통해 피해 아동 보호 방안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신고 지식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업무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직접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24개 시설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수성구는 올해 대상 시설을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까지도 확대했다.

3월 말 기준 51개 시설과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마을돌봄교사 30명 교육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꾸준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아동의 신변 관리,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 선제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유관기관과의 끊임없는 협력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4월부터 문 닫는다

도시철 4호선 차량기지 들어서 부산물상가는 2026년 9월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이 1일 폐쇄된다.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 시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1970년 1월 1일 달서구 성당동에 처음 개설한 도축장은 이후 서구 중리동을 거쳐 2001년 5월 현재의 북구 검단

동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현재는 당초 설치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고, 20년 이상 경과하면서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이 늘어나 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임시적·유동적·재정적·기능적 측면에서 폐쇄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군위군 편입으로 인해 군위민속LPC(처리

능력 : 소 100두/일, 돼지 1500두/일)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시가 직접 도축장을 운영할 필요성이 더욱 낮아졌다.

후적지는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로 제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한다. 부산물 시장은 2026년 9월 27일까지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안중근 대구시 경제국장은 "폐쇄 후 후적지는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로 활용될 예정으로 앞으로 대구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시설물이 들어설 것이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공유재산실태조사 공모 선정...대구·경북 유일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 노력 인정 용도폐지 세부 기준 주목 받아

달성군은 지난달 29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의 적정 사용현황을 파악해 재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매년 산제적으로 전문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과 협업을 통해 정확성을 높인 현장 중심의 재산관리에 앞장서 왔다.

특히 올해는 각종 사업 완료 후 남은 잔여지

수조사로 파악한 666필지 37,499㎡에 대해 실태 조사계획의 구체성, 공유재산대상과 현장의 지적공부 일치로 총출발 재산관리 운영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군은 추가 자금 확보로 적정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사업 후 남은 잔여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무단점유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미활용 중인 공유재산은 추가 발굴해 일반인들에게 대부하거나,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달성군은 그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행정목적에 다한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해 실수요자가 대부·매각하는데

에 용이하도록 '달성군 용도폐지 세부기준' 마련해 올해부터 조속한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재산관리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공유재산 홈페이지를 개설해 대·중·소기업의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류재산의 일시사용 승인제도를 신설해 우유가가사업(마을가꾸기),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활용하는 등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힘써왔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활용 재산의 상계현황을 파악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등 재산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중구청, 재활용센터 개소 2주년 기념행사

중고가구 판매가 10% 인하



중구청은 오는 30일까지 재활용 가능 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중구 재활용센터는 개소 2주년을 맞아 전 품목을 10% 할인 판매하고,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한다.

판매 중인 상품은 중구재활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jungu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김경민 마는질놀이터소임방 대표 외 9명의

작가가 참여해 폐목재, 헌옷 등 다양한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만든 방석, 의자, 장식품 등 120점의 업사이클링 작품을 전시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중구재활용센터를 이용하면 가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재활용과 새활용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의 재활용과 탄소중립을 위해 대구시 구·군 중 최초로 조성된 중구 재활용센터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재활용할 수 있는 중고가구를 무상으로 수거한 후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 시민과 자라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자원순환 체험학습교실 △목공예체험반 △의류새활용반 △정리수납반 등 재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조미경 기자

동구청 드림스타트, 안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구 동구 드림스타트는 무극안경 동구점과 업무협약을 맺고,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중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 구매와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아이(Eye)건강 안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Eye)건강 안경지원 프로그램'은 동구 드림스타트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무극안경 동구점과 드림스타트에서 각각 50%씩 부담해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아이 건강지원 사업에 도

움을 주신 무극안경 동구점 대표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동구 드림스타트는 2009년부터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보육·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평한 출발 기회를 주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모두베기 후 수종전환 추진

달성군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은 재선충병의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산림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1월부터 피해목과 기타 고사목 약 4만 2천 그루를 방제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일반 방제구역과 특별 방제 구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방제 전략에 따라 차등방제를 시행 중이다.

일반 구역은 △화원·옥포·가장지구 △논공지구 △유가지구 △현풍·구지지구 총 4개 지구이며 청정구역인 비슬산을 지키기 위하여 선단지를 구축하고 전량방제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류의 밀도가 높고 피해 범위가 넓어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올해 1월 다시금·하빈면 전 면적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방제구역은 기존의 단독방제로는 고사율을 따라갈 수 없어 강도의 소나무류 숲어베기 후 수종전환을 통해 혼효림을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인 실정이다.

이에 달성군은 최고 극심지역 마천산 문암역기지 주변 일원을 시작으로 7.25ha의 모두베기 사업을 시행하고 조립사업과 병행하여 수종전환을 도모하는 등 건강한 산림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재훈 군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경북교육청, 2명 이상 장애자녀 가정 150만원 지원

경북교육청은 도내에 2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가정에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경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장애 학생의 사회적 능력을 높이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한 가정에 도내 공립 유·초·중

고·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2자녀 이상인 가정으로, 3월 현재 도내에는 339가정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교복·체육복·교재 구매, 진로문화 체험비, 대회 참가비, 시험 응시료, 목욕비, 아·미용 서비스 이용, 방역물품 구매, 기저귀 구매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핵심과제 연구용역 착수

4개 과제 연구용역 4~6월까지 진행
돌봄 융합 특구 등 구체화 돌입
향후 도 국비 확보 등 정부에 건의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핵심 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에 들어간다.

경북도는 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총 6천만 원을 들여 '저출생과 전쟁 핵심 과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될 연구용역은 △우리 동네 돌봄 마을 활성화 및 돌봄 융합 특구 조성·운영 방안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 발굴 및 규제 예외 해소 방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및 타당성 조사 △(가칭)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등 총 4건이다.

경북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진행되는 (가칭)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건을 제외하고, 앞선 3건은 민간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분야별 현황과 지역 여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해외 및 민간 우수사례 등을 두루 살펴 국가 정책 등과 정합성 있는 핵심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둔다.

우선, 우리 동네 돌봄 마을 활성화 및 돌봄 융합 특구 연구용역에서는 도의 역점 사업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저출생 극복의 핵심 사업으로 도가 정부에 건의 중인 '돌봄 융합 특구'에 대해서는 실행 방안, 추진 체계, 예산 투입 등 세부 과제들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또한, 저출생 대응 속도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도 나선다.

저출생은 돌봄, 주거, 일자리, 기업,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다양한 영역의 난제들이 얽힌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숨은 규제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장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과감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과제 발굴 및 타당성 연구도 진행한다. 도는 저출생 극복을 출산·양육 등 단기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구조 개혁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 고령화 대응, 이민 활성화, 교육개혁, 공동체 정신 등 중장기적 사회구조 설계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최근 국가·지역의 저출생 및 인구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고,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립 연구도 진행한다.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립 타당성 및 기능, 운영 방안 등을 도출해 (가칭) 인구정책연구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4월 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 결과는 '경북 주도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비 유치, 규제 개선 등 정부 건의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반등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시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단편적 접근보다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에 첨병 역할을 할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교육청, '따뜻한 행복학교' 운영 전년대비 344교 운영, 학교 현장 호응

경북교육청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4학년도 '따뜻한 행복교육' 사업 공모 결과, 도내 943교 중 344교가 '따뜻한 행복학교'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따뜻한 행복교육'은 학교생활 속에서 행복의 의미를 알아가고 긍정적인 인식 함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202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기존 행복 실천학교·행복교육교

원학습공동체 사업을 폐지하고, 따뜻한 행복학교 운영에 주력하여 학교 단위의 행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경험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올해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의 성장 수준을 고려한 행복 활동 운영, 지역 자원 활용,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관점 바꾸기, 감사하기, 목표 세우기,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나누고 베풀기, 용서하기 등의 주제를 활용한 활동을 펼치도록 안내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복 교육이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美 JFK재단 명예회장 부부, 하회마을 방문

이 지사, 케네디 명예회장과 환담
세계유산 하회마을 둘러보며
경북과 특별한 인연 맺고 돌아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달 28일 하회마을을 방문한 케릴라인 케네디 미국 JFK재단 명예

회장(현 주호주 미국대사)과 환담을 가졌다. 이 지사는 이날 하회마을을 방문한 케네디 명예회장 부부와 풍산류씨 대종회장, 하회마을을 종손, 안동의료재단 회장 등과 학록정사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서는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빼어난 자연 환경에 대한 훈훈한 덕담과 경북의 저출생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오고 갔다. 케네디 명예회장은 "하회마을은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방문으로 유명해져 이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며, 한식과 한복 등의 전통문화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또한 방문을 환대해 준 주민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차로 떠나는 경북여행, 그 매력에 반하다

'반하다! 경북(시즌2)'로 돌아온
기차여행 특별관광상품 오늘 출시
철도 요금+역사매장이용권 50% 할인

경북도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와 협업해 4월 1일부터 기차여행 관광상품인 '반하다! 경북(시즌2)'를 선보인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반하다! 경북' 후속 상품으로, 경북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도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기차로 경북을 찾는 개별 여행객에게 철도 요금 할인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기차여행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여행 방식으로 경치를 감상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반하다! 경북(시즌2)'는 이러한 기차여행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해 여행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경북으로 여행 올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반하다! 경북'은 '경북여행으로 경북에 반하다'라는 의미와 '경북의 관광상품을 반값에 이용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경북 외 지역에서 출발해 경북으로 도착하는 기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철도 요금 할인 및 기차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역사매장이용권)을 할인 제공하는 관광상품으로, 지난해 4월에 처음 선보여 5개월 만에 인기를

끌며 조기 완판됐다.

지난해 운영한 '반하다! 경북'은 경북을 여행하고 관광지 입장료·숙박료·식음료 결제 영수증을 통해 방문 인증을 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시작하는 '반하다! 경북(시즌2)'는 경북 22개 시·군에서 추천받은 154개 관광지에 대한 방문 인증과 연계한 기차여행 관광상품으로 구성됐다.

여행객은 154개 관광지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고 인증샷을 등록하면 철도 요금과 역사매장이용권(5,000원) 각각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상품을 구매하는 여행객에게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 요금 10%의 특별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반하다! 경북(시즌2)'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여행상품-국내패키지) 또는 코레일톡 어플(관광상품-경상권)에서 4월 1일부터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이용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하다.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경주시, 배반지하차도 배수로 정비공사 시행

경주시가 배반지하차도 배수시설 정비 사업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차도 배수관로의 노후·파손으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 마련됐다. 배반지하차도는 집중 호우 시 도로의 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을 경우 침수로 인한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오는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이번달 말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는 직경 60cm 배수관을 산업로를 따라 길이 240m 구간에 우수관로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주, 올해 일자리 1만3752개 창출... 고용율 67.8% 목표

5대 핵심과제 세부사업 전략 수립
미래차 스마트 유틸리티 기반구축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전력

경주시는 올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키로 했다. 시는 1만3752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올해 유동인구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5대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233개 세부사업을 발굴했다.

5대 핵심전략 중 공공부문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8609명) △직업인력 개발 및 계층별 고용서비스 확대(2378명) △청년창업 인프라 조성 및 고용장려금 확대(289명) △산업·관광·농림·환경 분야 투자 및 일자리 인프라 구축(1852명)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를 마련한다.

민간부문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유무료 직업소개소 사업 등에 624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시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차 전환기에 대응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첨단 부품화 전환을 통한 기존 일자리 유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달성에 매진한다.

또 덕일산업, 시그마씨 등의 자동차 제조업



공장 관련 기업 유치에도 앞장선다. 특히 중장년과 노인층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와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 사업은 물론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여성 구직자를 위해선 경력 보유 여성을 위

한 공공일자리, 새일여성인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지원 등으로 구직을 돕는다. 청년들에게는 청년활동거점 공간인 '청년고도' 운영을 통해 창업절차 및 사례 공유, 취업 관련 상담, 컨설팅을 지원한다. 더불어 지식학 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직업평생교육을 통한 지

역정착 유도, 자원을 활용한 창업아이템 발굴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농·어촌 관광 인프라 조성도 꾸준히 추진한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일자리 1만4694개를 창출해 당초 목표인 1만3782개를 912개 초과해 107%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전국 최고 수준

의 관광자원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 제조, 첨단산업의 균형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구직자와 기업 간 소통창구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 나서

4.1.~5.31. 특별관리 공사장 민원다발 사업장 중점 점검

경주시가 건조한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행된다.

특별점검 대상 사업장은 현재 지역에 신고돼 진행 중인 건설 공사장 526개소 중 특별관리 공사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

행되며, 시멘트, 폐기물, 육상골재 관련 사업장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련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트사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개선한다. 중대한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인 위반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 정부합동평가' 대비 적극 대응 나서

배점 높은 정성지표 담당자 대상 전문가 초빙 특강 실시 주낙영 시장 "행정역량 평가 만큼 최선 다하겠다" 강조

경주시가 '2024년도 정부합동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성지표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관례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주요시책 등을 중앙부처에서 합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방식이 여타 다른 정부 평가와 차이점이다.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정부업무 평가위원이었던 김정호 신한대 명예교수를 초빙해 평가 항목에 따른 준비사항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주시는 이번 특강으로 우수사례 작성 컨설

팅을 실시하고 합동평가 지표담당자들의 개별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부합동평가는 경주시의 행정역량을 평가받는 중요한 평가인 만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교육 및 회의를 개최해 부진지표를 점검하고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4년 경북도 내 최상위권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 간 협조와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우수 창업아이템 보유 청년창업자에 1200만원 지원

청년창업자 10팀 모집 지식산업, 6차산업 등

경주시가 '2024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창업자 10팀을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도 자금 부족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청년창업자들에게 팀당 창업자금 1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창업공간과 전문 창업컨설팅은 물론 우수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모집분야는 기술, 지식서비스, 6차산업, 일반 창업이다.

신청자격은 경주시에 거주지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2023.2. 이후 사업자등록자)인 자이다.

참가 희망 예비 청년창업자들은 신청기간 내 위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sichoi@uu.ac.kr)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10팀을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탁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054-760-1385)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 부족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약하는 청년창업자에게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신청기간 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롱나무 200본 식재 산림 중요성 알리

경주시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29일 문무대야면 장항리 토함산경관숲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22년 이후 임용 신규공무원 100명과 산림기관 관계자 50명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0.5ha에 배롱나무 200본을 식재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식목일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이날은 신규공무원들이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염원을 담은 애기띠를 두르고 희망의 씨앗을 심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경주시는 이날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건천습화천리산86번지의 14필지 임야 43

ha에 편백, 자작, 낙엽송 등 12만 3천 본을 식재한다.

또 산림을 가꾸기 위해 69억원 예산을 들여 올해까지 지역 임야 2109ha에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숲가꾸기 사업과 정기적인 나무식재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기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급격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며 "건조한 날씨까지 속속들이 따라 산불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산불예방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사업 참여기업 19일까지 모집

디자인개발 등 6개 분야 기업당 최대 1천만원까지

경주시가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024년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업지

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본사가 경주에 있는 공장 등록 된 중소기업이며, 선정 기업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지원 분야는 디자인개발, 홍보물제작, 제품생산, 컨설팅, 마케팅, 인력양성 등 6개 부문으로 기업이 희망하는 다양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어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 올해부터 시

는 가족화인증기업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해 저 출생 문제 해결에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수행 기관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에는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다"며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 지원 사업을 마련해 지역에서 다양한 경영활동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 '확산 방지' 수종전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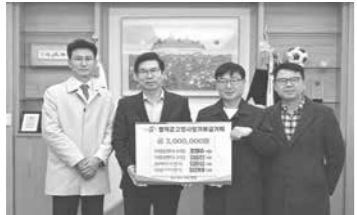
경주시가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방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기존 방제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피해 극심지역을 중심으로 수종전환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재선충병이 소규모 형태로 발생하던 기존 양상과는 달리 최근 들어 밀집 형태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예방나무주사과 피해고사목 등을 방제하는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영덕군, 기업인들의 따뜻한
'고향사랑' 기부 행렬 이어져

영덕군 출신의 기업가들이 따뜻한
고향사랑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백종합건설 소
응두 대표와 ㈜경대종합건설 안창
식 대표가 김광열 영덕군수를 만
나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
이넷종합기술 이상윤 대표가 200
만원, ㈜서울전설 조성대 대표가
100만원, ㈜경일소방 이동걸 대표
가 2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기
부했다.

이어 ㈜경호엔지니어링 조영수
대표, ㈜명성엔지니어링 김승진
대표, ㈜아이티엔지 김춘식 대표,
㈜상기이엔지 김관태 대표가 각각
50만원씩 200만원을 전달했고, ㈜
계명마케팅연구소 김민지 대표가
200만원을 김군수에게 기탁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을 응
원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
다"며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 사
업에 소중히 쓰겠다"고 전했다.



영양군,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눠주기 행사' 개최

영양군은 지난달 29일 영양군청
잔디광장 주 행사장과 입암면 등
5개 면사무소에서 제79회 식목일
을 기념해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영
양군은 장미 등 3종 목목 총 3550
본을 준비했고, 산불에 대한 경각
심을 고취하기 위해 산불예방홍보
캠페인을 병행했으며, 영양군산림
조합에서는 차와 음료를 후원했다.

이번 행사에서 배부된 수종은
장미, 목수국, 수국이며, 선착순
으로 1인당 수종별 3~5본을 나
눠줬다.

울진군 NH농협은행,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분양대출 우대 협약 체결

대출한도 최대 80% 까지

울진군은 지난달 27일 NH농협은행과 울진 원
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분양대출
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9년 준공 예정인 국가산단의 성
공적인 추진과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울진군이 국가산단 입주 및 분양계
약을 체결한 기업 중 분양대금의 20%를 납부한 기
업을 NH농협은행으로 추천하면 NH농협은행은
추천받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
공함과 동시에 토지분양대금의 80% 범위 내에서
대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융지원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완화는 물론 국가산단 분양에 활력을 불어넣
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 2월 비상경제재정관회의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발표와 26일 국가산단 입
주협약 체결 등을 통해 국가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산단 조성 이후의 원활한 운영까지 고
려하여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산업인력 양성 및 국
가산단 입주대기업 취업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
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으로 국가산단 입주
예정기업 세제지원 및 규제특례, 재정·금융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안을 구
상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울진군 최대 현안 사업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
했다.

또한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NH농협은행과 체결한 분양대출 우대 협약

외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분
야수소추가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대규모 투자 유인책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울진 바다에서 몸과 마음을 쉬어가다!

연장 2.2km, 5억원 투자

숲속식당, 운동기구, 주민편의 시설 등도 설치하
여 주민과 관광객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에 5억원을 투입해 2024년 4월
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시설공사를 착
공해 오는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해양치유 맨발걷기 체험코
스 개발이 완료되면 월송정 인근에 추진 중인 울
진 해양치유센터, 구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 울
진 사구습지와 연계 하여 관광벨트를 형성하고
주민건강 증진과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울진군은 관광 1000만 시대 준비를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오는 10월까지 평해읍
월송정 일원에 해양치유 맨발 걷기 체험코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치유 맨발걷기 체험코스는 관동팔경 중 하
나인 월송정 소나무 숲과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기존의 길에 2.2km를 연장하여 조성할 예정이다.
체험코스에는 맨발 걷기길 외에도 세죽대, 정자,

청송군, 과수 저온피해예방 교육 실시

청송군은 지난달 27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
연장에서 과수농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과수 저
온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매년 반복되는 봄철 저온 피해를 선
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재해예방시설인 미세살
수장치, 열상방상팬과 결실불량 예방 효과가 있
는 냉해감감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서
는 미세살수장치와 열상방상팬의 운용방법과 냉
해감감제의 실효방법, 보조사업 추진요령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 강사로 나선 농업기술센터 서경수 과
수기술팀장은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개화기 전

냉해감감제를 적절히 살포하여 작물의 내한성을
증진시켜 추위에 대비하고, 재해예방 시설을 수시
로 점검하여 기온 하강이 예상될 때 즉시 작동시
켜 주시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한 작년 미세살수장치 가동을 통해 재해예
방 효과를 경험한 청송사과GAP사업단 심재신
회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미세살수장치의 장점
과 경험담, 주의사항들을 농가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고품질 사과 생산을 통해
청송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울릉군, 김포시와 자매결연 협약식 체결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약속

울릉군과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달 28일 김포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호발전과 교류확대를 위
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작년 9월 김포시의 자매결연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해 올해 2월 김포시 대표
단의 울릉도 눈축제 참석과 4번의 실무협의를
거쳐 양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성사됐다.
협약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와 김병수 김포
시장



시장을 비롯해 김인수 김포시의회의장, 선종우
재경향우회장, 양 지역 체육회장 및 간부 공무

원 등이 참석해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과 교류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협약식에서 서
명했다.

남한권 군수는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양 지
자체 간 우호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앞으로 지
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할 계
획"이라며, "양 도시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서
로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자매관계를 이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식을 계기로 울릉군과 김
포시는 관광, 문화, 스포츠, 경제, 특산물 등 다
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으로 더욱 긴밀한 관
계를 구축해 상생발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송군, '보고 듣고 말하기'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서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
부 인증 '보고 듣고 말하기' 생명지킴이 양성 교
육을 실시했다.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은 자살위험
에 처한 주변인의 경고신호를 인식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
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가와 연계하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 밖에도 추후 관내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자살예방 관련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ZOOM
들어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숲 산과 들과 강과 바다를 품은 영양의 숨겨진 아름다움

길 옛길과 새길, 영양을 걷는 즐거움

물 맑고 시원한 물, 영양의 청정함을 느낄 수 있는 곳

빛 아름다운 자연경관, 영양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

맛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 영양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

심 조용하고 아름다운 풍경, 영양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

영양을 다가가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으로 오세요

강릉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익계곡, 수해계곡, 분신계곡, 칠백공원, 죽백수원, 위백계곡
영양의 역사, 용사대(비밀), 사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김치마을, 지경마을, 관촌마을, 김산성, 옥산마을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박물관보유공원, 반딧불이전시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문화전시관, 일월산자연휴양림, 영양공예발전단지, 흥원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태휴양림,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영천시, 24년 대외 기관평가 목표 달성 대책 보고회 개최

영천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영상 회의실에서 김진현 부시장 주재로 기관평가 담당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대외 기관평가 목표 달성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상부기관의 분야별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정된 111개 평가지표 중 2024년 하반기에 평가가 실시되는 35개 지표를 대해 보고가 이루어졌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표별 목표달성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성주 금수면, 아름답고 활력 넘치는 꽃길 조성

성주군 금수면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부터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일환으로 면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하여 봄맞이 연도변 꽃길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꽃길 조성은 금수면 입구를 비롯한 무궁화동산, 면사무소 주변 등에 꽃잔디, 패랭이꽃, 송엽국 등 식재하여 시가지 곳곳을 화사하게 장식 하여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하고 향후 보식, 관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의성군 보건소, 치매파트너 및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의성군은 지난달 20일과 27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치매파트너 및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 역할을 한다. 또한, 생명지킴이는 주변인의 자살 위험신호를 인지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에 연계하는 역할이다.

교육내용은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기술 △치매환자를 위한 서비스 △치매조기검진 안내 △치매예방수칙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개발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 등으로 영상을 통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의성군보건소 신규직원 A씨는 “보건소의 중요한 역할 중 두 가지 역할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동반자로서의 치매파트너 역할과 연결자로서의 생명지킴이 역할을 실천해야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2024 고령 대가야축제”성황리에 마무리



고령군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2024 대가야축제'에 22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많은 관광객들이 대가야축제를 방문한 이유는 축제콘텐츠 업그레이드와 야간경관 조성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이 연장되었고, 특히 축제 마지막 날에는 벚꽃 개화로 인해 상춘객들의 발걸음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8회째를 맞은 고령 대가야축제는 유네스

코 세계유산 등재와 발맞춰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는 주제로, 지산동고분군을 중심으로 대가야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가야축제는 축제 첫날 대가야종묘대제와 고령군민의 끼를 한껏 발산한 군민화합한마당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마무리했다.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는 주제로 구성된 주제관에서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의 추진 과정, 대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모두가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했다.

또한, 축제 둘째 날과 마지막 날 문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의 대표 공연인 '100대 가야금 공연'은 100인의 가야금 연주자가 참가함으로써 웅장한 연출과 아름다운 선율로 대가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가야금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객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물했다.

축제 둘째 날에는 가야문화권 합창 페스티벌과 창작뮤지컬 '도둑맞은 새'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고, 이어 펼쳐진 가야풍류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는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더불어

“세계유산도시, 고령”으로 초대 “역대 최다 인파가 몰렸다...”

공연 중간 펼쳐진 대가야별빛쇼(불꽃놀이)로 대가야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아, 많은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축제 마지막 날 대가야읍 일원에서 펼쳐진 '대가야의 길' 거리 퍼레이드에는 지역주민 및 축제 참가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 읍면을 대표하는 독특한 의상과 컨셉으로 긴 행렬을 구성하여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이후 문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가야풍류 두 번째 공연으로 성대하게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축제로 구성해 지난 축제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보여주었으며, 복합문화공간과 이색 휴게공간 연출로 관광객들에게 신선함과 즐거움을 선물했다.

올해도 지산동고분군과 테마관광지, 우특지에 화려한 야간경관조명을 배치해 늦은 밤까지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은 축제장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다.

이날철 고령군은 “주민이 즐거운 축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가족 단위로 즐길거리가 있는 축제”라는 기획방향 아래 알차게 구성하였으며, 정말 많은 외부 관광객이 방문하였다며 내년 축제는 더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발굴로 대가야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의성 봉양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패키지 공모 선정

의성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패키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복합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1994년에 준공되어 올해로 30년을 넘긴 봉양농공단지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국도비 47억 원 등 총 60.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산업기반을 새롭게 탈바꿈할 계획이다.

봉양농공단지는 그간 열악한 정주 여건에도 불구하고 24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꾸준한 경영활동 등으로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기반 시설의 노후화와 청년 근로자 근무 기피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성장세가 하락하고 있어 반등을 위한 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었다.

군은 이러한 봉양농공단지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기업인, 근로자, 주민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수요를 파악하여 청년문화센터를 새로이 건립하고, 센터 내 근로자 식당, 무인매장, 키즈카페 등 편의공간과 헬스장, 멀티미디어홀 등 문화공간, 공유오피스, 기업컨설팅룸 등 기업지원 시설을 마련한다.

아울러 노후 공장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청년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공간 조성으로 의성군의 관문에 위치한 봉양농공단지가 청년과 함께 의성군의 산업경제를 이끌어 가

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2년에 선정된 의성농공단지 패키지 공모사업 추진으로 동부권 산업기반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단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해 서부권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봉양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패키지 공모 선정을 통해 동부와 서부를 잇는 중심권역의 산업기반을 새롭게 조성해 의성군 전역의 산업기반 체질을 개선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한때 농촌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농공단지가 청년이 사라지고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의성의 관문인 봉양농공단지가 청년이 찾아오는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농공단지로 도약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벚꽃 향기 가득한 영천담 벚꽃100리길 마라톤대회 개최

5km 건강달리기·10km·하프 3개 종목
2,000여 명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

지난달 30일 영천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천시 육상연맹과 ㈜체널경북이 공동 주관한 2024년 영천담 벚꽃100리길 마라톤대회가 영천담 일원에서 참가자 및 진행요원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5km 건강달리기·10km·하프 3가지 종목으로, 영천담공원을 출발해 벚꽃100리길을 따라 달리는 코스로 진행됐다. 5km 건강달리기 코스는 용화교 이전 지점, 10km 코스는 자양면 소재지 이전 지점, 하프 코스는 삼귀교에서 효효삼거리 방향으로 500m 지점에서 반환해 돌아오는 코스이다.

‘첨단베어링 산업 메카 영주시’, 일진그룹과 협력 다져

영주시, 일진그룹 이동섭 부회장 만나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논의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난달 28일 ㈜베어링아트 영주공장서 일진그룹 이동섭 부회장과 만나 첨단베어링 산업 메카 영주시와 베어링 산업 영커기업인 일진그룹이 국내 베어링 산업부흥과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만남은 일진그룹 이동섭 부회장의 ㈜베어링아트 영주공장 방문에 맞춰 이뤄졌으며,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추가 투자와 유관기업 유치를 위한 영커기업의 역할 수행 등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동섭 부회장은 향후 국가산단에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내실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긍정적인 회담으로 국가

를 기대하고 있다.

물 등 각종 홍보부스가 설치돼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날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 티셔츠가 제공됐으며, 완주자에게는 완주메달과 간식이 제공됐다.

대회 종료 후 이어진 중목별 시상식에서 남자 1위는 △김병우(5km) △안은태(10km) △최진수(하프) 선수에게, 여자 1위는 △김태현(5km) △박혜림(10km) △임태현(하프) 선수에게 돌아갔다. 5km 1~5위 입상자에게는 지역 특산품이 주어졌으며, 10km와 하프 1~3위 입상자에게는 30만 원~1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벚꽃 만개는 아쉽게도 늦어지고 있지만, 아름다운 영천담을 따라 달리며 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며 “대회 참가자 및 관람객께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에 유의해 대회를 즐겨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산단 기업 유치를 위한 동력 발판 마련에 힘을 실어줬다.

일진그룹은 1973년 창업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휠 베어링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현재는 산업용 베어링 산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전 세계 10개국 20개 도시에서 총 16개의 법인을 운영하며 세계적인 기업과 당당히 경쟁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베어링아트는 일진그룹의 계열사로 2011년 12월부터 영주시 장수면 반구전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해 각종 산업용 베어링을 제조하고 있는 베어링 분야 영커기업이다. 2019년 9월에는 영주

‘제15회 영주농업대상’선발 5월 31일까지 추천 접수

영주시는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최고의 명품을 발굴하기 위해 ‘제15회 영주농업대상’을 선발한다.

영주농업대상은 2007년부터 명인·명품·명소 분야에 총 52명을 선발해 지역 농업의 모범 사례로 삼아왔다.

이번 제15회 영주농업대상 선발 분야는 명품 분야이다. 선발기준은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해 생산한 가공품이나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여 생산 소득향상에 이바지한 품목이다.

후보자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동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영주농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추천서 및 서류현장 심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1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명품 생산자에게는 연말 농업인의 날에 상장과 기념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 벤치마킹 교육장으로 활용할 현장 교육장 시설설치 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영주농업대상 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및 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내 ‘영주농업대상 선발계획’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영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영주농업대상 선발을 통해 생산 소득향상에 기여한 명품을 선정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농업 발전에 큰 힘을 주고자 한다”며 “수상 농가는 지역 농업인의 벤치마킹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돼 미래지향 부자농촌 실현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와 반구전농공단지 확장부지 3만평에 3,000억 투자, 500명 신규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히 투자를 진행 중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베어링 산업 분야의 영커기업인 ㈜베어링아트의 추가 투자 유도와 긴밀한 공조로, 국가산업단지에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 경북 북부 대표 산업도시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기업유치 전략수립 운영 추진으로 기업의 입주 의욕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 추가 발굴,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2024 대구광역시일보

女人天下 챔피언십



특별 행운상

- 임플란트 진료권
- 한의원 상품권
- 성형외과 시술권
- 호반오리 무료시식권
- 펜션 숙박할인권
- 골프장 그린피할인권

메달리스트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성형외과 진료권 20만원

신페리오

- 우승
150만원 (백화점상품권)
- 준우승
100만원 (백화점상품권)
- 3위
70만원 (백화점상품권)
- 롱기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 니어리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만찬장소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층 대식당

5월 20일 (월) 순차플레이

- 팀 : 20팀 선착순 마감(입금자순)
- 참가비 : 27만원
- 장 소 :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주최 (주)대구광역시일보 주관 경주 보성마트

3월 21일 ~ 4월 30일(입금자우선)

- ※입금 후 환불 불가 (선수교체 가능)
- ▣ 참가자격 : 아마추어
- ▣ 참가비 : 27만원 (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 김영숙)
대구은행 508-11-147821-4

-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 담당 010-4473-4473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